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문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랑가라 컬리지에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의 반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복도를 걸어다닐 때면 마치 미국드라마에서 본 고등학교 느낌이 들면서 어학연수 온 것이 실감이 났었다.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었고 카페테리아에는 팀홀튼 커피 카페가 있어서 점심을 싸오지 않았거나 싸왔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도넛이나 음료 등을 사 먹을 수 있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우선 첫날에 도착해서는 각자 홈스테이 가족을 기다리면서 컴패스(교통카드)를 받고 이곳의 교통 구역에 따른 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를테면 Skytrain은 1zone 내에서는 한번 찍고 탈 수 있지만 2zone으로 넘어가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밴쿠버는 안전한 도시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듣기평가를 봤다.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한국인 5명과 일본인 11명이 있는 반에 속했고, 선생님의 이름은 Ben이었다. 과제는 매일 저널을 쓰는 것과 바인더 활동지 한 두장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수업은 창의력을 요하는 활동이 많았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항상 2인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중에 Vancouver Discovery는 밴쿠버 Downtown의 유명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듣는 활동인데 정말 많이 걷는 활동이니 무조건 편한 신발과 물을 챙겨야 한다. Kayaking은 딥 코브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는 활동인데 햇빛이 매우 강해서 선글라스와 모자는 필수고 긴팔 긴바지를 입어야 살이 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카약 뒤에 앉는 사람이 방향키를 조종하기 때문에 물에 좀 많이 젖지만 해가 강해서 금방 마른다. Whistler Trip은 밴쿠버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야한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리프트와 곤돌라를 타는데 리프트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조금 힘들 수 도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날씨가 맑으면 휘슬러 산의 놀라운 장관을 볼 수 있는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기모 안감의 후드와 긴바지를 입는 것을 추천하고 비포장 길을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Vancouver Aquarium은 밴쿠버에 있는 Stanley Park안에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자전거를 빌려서 공원을 돌면 좋을 것 같다.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밴쿠버와 넓은 바다의 조화는 미친 듯이 아름답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useum of Vancouver에서 밴쿠버의 근대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흥미롭게 구경하고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 활동들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지불이 필요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의 8월 날씨는 천국이다. 마치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같다. 밴쿠버에 있는 동안 첫 번째 주말 새벽에 비가 한번 왔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가 다 눈이 부시도록 맑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아침 저녁은 눈물이 날정도로 바람이 차가우니 얇은 가디건과 난방같이 간단하게 걸치고 벗을 수 있는 긴팔을 가져가야 한다. 나는 반팔만 따로 입은 날이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의 치안은 괜찮다고 들었다. 하지만 Downtown에 가면 Homeless들이 많고 그들은 거의 Drug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많은 거리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밤 11시 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밤에 보는 밴쿠버의 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우선 나는 나의 홈스테이 배정에 대하여 정말 만족하였다. 나의 홈스테이 부모님들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홈스테이 학생을 받아오신 베테랑 분들 이셔서 나를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게 느낄지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나 말고도 이미 2년이나 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일본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랑가라를 졸업하고 UBC로 옮기려고 하는 와중이여서 너무 바빴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베트남에서 온 홈메이트가 생겨서 정말 잘 지냈다. 한국학생들이 각자의 홈메이트를 데리고 와서 같이 Robson st에서 재밌게 논 추억이 정말 인상 깊게 남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홈스테이 환경과 부모님이 최고였다고 생각한다.</p>
식사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는 초반에는 거의 항상 집에서 저녁을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먹었다. 우리 홈스테이 맘은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매일 저녁 메뉴가 달랐고 맛있었다. 그리고 점심은 거의 샌드위치였지만 적어도 빵 종류를 다르게 해주셔서 질린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리고 외식도 두 번이나 했다. 한 번은 스시를 먹었고 한번은 인도음식을 먹었다. 정말 좋았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우리 집에서 Langara College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분 정도 걸렸었다. 버스에서 Skytrain으로 한번 갈아타는 방법과 버스에서 버스로 한번 갈아타는 방법이 있었는데 후자가 시간이 덜 걸리면서 훨씬 더 편했다. 하지만 초반에는 몰라서 시간도 더 걸리고 더 많이 걸렸었다.. 하지만 이정도면 만족하는 거리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캐나다 면세점	130\$	
식비	250\$	
기념품	250\$	
옷	50\$	
합계	68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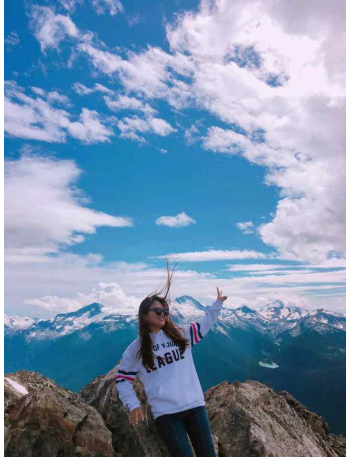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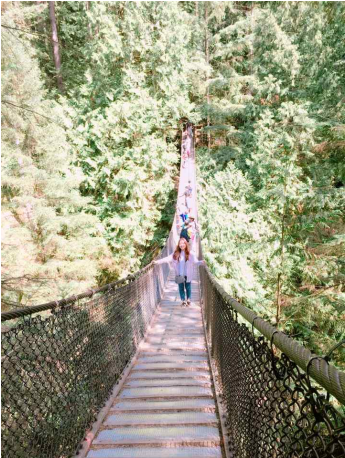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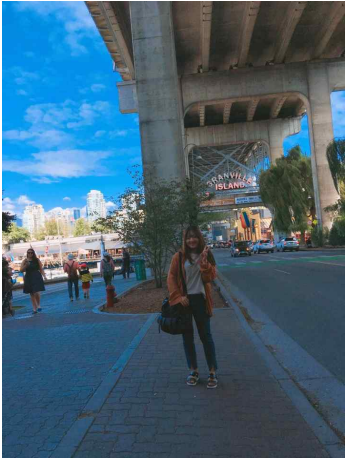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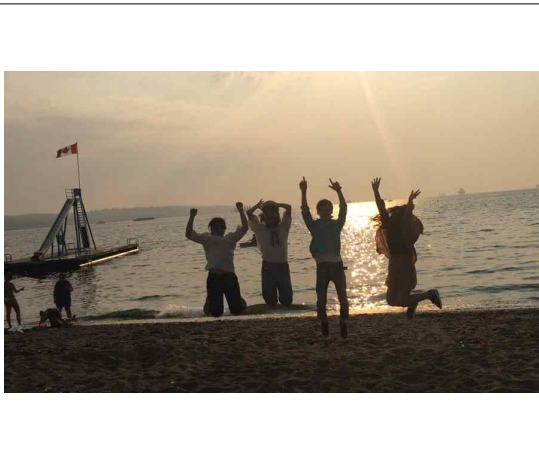

우선 출국 전에 유심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 가서도 물론 살 수 있지만 그 곳은 계약서부터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유심을 사려고 했던 친구들은 결국 유심 없이 와이파이에만 의존하면서 다니게 돼서 불편을 겪었었다. 한국에서 잘 찾아보면 좋은 조건으로 그리 비싸지 않게 유심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날씨가 생각보다 춥기 때문에 긴바지는 3개 이상, 긴팔 옷과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난방이나 얇은 셔츠들을 챙겨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돈을 아끼고 적게 쓰고 싶다면 환전과 신용카드 반반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환전을 많이 해 간다면 여차피 다 쓸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인천공항에서 사야한다. 캐나다 공항의 면세점은 정말정말 작다. 그리고 어느 홈스테이가 걸리고 홈메이트가 누구이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누구든지 부러워할만한 국제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까지 여학연수로 간만큼, 영어로만 최대한 이야기 하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가면 좋겠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우선 나는 망설이고 있는 학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처음 하는 홈스테이가 걱정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개강이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나는 확실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목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전에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궁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세계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져서 뭐든지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든지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도 생겼다. 무엇보다 밴쿠버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 또한 무척이나 친절하고 아파트가 뽁뽁한 우리나라 도시와는 대조가 되면서 밴쿠버에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버스를 타면 창밖에는 집들이 지나쳐 가는데 디자인이 어느 하나 똑같은 집이 없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다. 사실 밴쿠버에 있는 동안에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순간에 대한 나의 기분과 느낌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려고 했고, 학교에서 사귀 일본인 친구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간직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나는 도전하면서 이러한 값진 경험들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Whistler Trip</p>	<p>Rode a bicycle at the Stanley Park</p>
	
<p>Suspension Bridge in Lynn Canyon Park</p>	<p>Market in Stanley Park</p>
	
<p>English Bay</p>	<p>Vancouver Science World at Vancouver Discovery</p>